

푸른길공원 길 한복판에 음식점 신축 추진 '설왕설래'

땅주인 "재산권 행사... 시에 매각 의향 있다"

시민단체 "시민위해 광주시가 사들여라"

"알박기 위해 매입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도

푸른길 공원내 건축물 신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사유재산에 대한 지자체의 매입을 주장한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을 광주시가 일부 수용하기로 했지만, 관련법상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데다 소유주의 설득 문제를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기약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습이다.

17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푸른길 공원으로 조성된 남구 진월동 1필지 면적 100㎡(가로 4m·세로 25m) 부지에 음식점 신축이 접수됐다.

해당 부지는 진월동 새한아파트와 도로를 사이에 둔 푸른길 공원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곳으로 본래 도로 예정부지였다. 소유주 A(46·광주시 남구)씨는 지난해 공매와 재산 매매를 통해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이 곳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상가나 음식점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남구는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푸른길 공원의 환경과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같은 해 10월 '건축 불가'를 A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광주지법에 남구를 상대로 '가설건축물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12월에 냈다. "사

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소식을 들은 환경·시민단체는 즉각 음식점 신축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푸른길 등은 '진월동 푸른길 내 음식점 신축반대 및 매입요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달 말부터 주민서명운동을 벌이며 남구와 광주시에 "해당 부지 매입"을 요구했다.

대책위 측은 "시민 보행이나 미관상 좋지 않고,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공원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광주시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토지 매입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소유자 동의를 대책위 측이 받아줄 경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개인 재산권의 행사권한을 '공공의 목적'을 앞세워 공공기관이 막아서는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렇지만 대책위는 "이미 공이 남구와 광주시로 넘어간 만큼, 소유주 설득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동의를 얻더라도 이 후가 문제다.



해당 부지가 토지 소유주가 우선매입청구 신청을 할 수 없는 '농지'로 구분돼 있어 소유주가 나서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정상적으로는 매입이 불가능하지만 이곳이 도로예정부지로, 기존에 나 있는 도로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매입할 수 있는 '기설도로 사유지 매입'이란 제도를 적용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합한 것으로, 문제의 부지가 푸른길 공원에 있지만 기존에 보도가 조성되어 있어 검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토지 소유주 A씨는 "광주시가 제시하는 조건을 검토해 분후 판매할 의향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알박기를 위해 공매를 통해 사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푸른길 공원내 사유지 매입 논란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사유지 매수청구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광주시 남구 진월동 푸른길 공원내 부지.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쳐둔 띠가 공원내 사유지 활용 문제의 단면을 보여 주는 듯 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1인당 공원 조성 면적 광주 5.9㎡ 전국 하위권 전남은 14.9㎡ 가장 넓어

광주 광산구 첨단2동 주민들 공원소음 문제 등 지역현안 주민 현장투표로 해결한다

광주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이 전국 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의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었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2만389개의 도시공원이 있으며, 조성면적은 412km로 16개 시·도별 1인당 평균 공원조성 면적은 8.9㎡였다. 16개 시·도 중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전남(전체 조성면적 19.7km·도시공원 1451개)으로 14.9㎡였으며, 전북 11.2㎡, 충남 10.8㎡, 울산·인천 각 1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 4.4㎡에 불과했으며, 부산 4.9㎡, 광주 5.9㎡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도시공원 수는 586개

소였으며, 전체 도시공원 계획부지 19.6km 중 44.2%인 8.6km만 공원이 조성돼 있는 상태다. 광주시는 나머지 도시공원의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 선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2조6700여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만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도심 내 자연공원(무등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하면 1인당 공원 조성비율이 45㎡로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주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심과 붙어있는 무등산의 특성상 광주권인 47km를 도시공원으로 포함해야하는데 국토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의 공기질이 특·광역시 중 가장 깨끗한 것도 무등산을 포함한 공원의 녹지비율이 타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광산구 첨단2동 주민들이 공원소음 문제 등 지역 현안을 주민투표로 해결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첨단2동주민센터에서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첨단2동 주민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상공원 소음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회의에서 나온 주민 의견 등이 담긴 안건을 현장 투표를 통해 확정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첨단2동 중심가에 위치한 대상공

원은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이 늘면서 다양한 소음이 발생, 인근 거주민과 이용객들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는 이번 투표를 통해 주민이 도출한 대상공원 소음 해결 방안을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물론 주민 한 사람의 의견도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게 광산구의 기본 입장"이라며 "특히 주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 소음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기간에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자치경찰제 도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5대 분권방안 제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제28차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 지방소비세 확대,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비율 15%포인트 상향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는 너무 현실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국가와 지방 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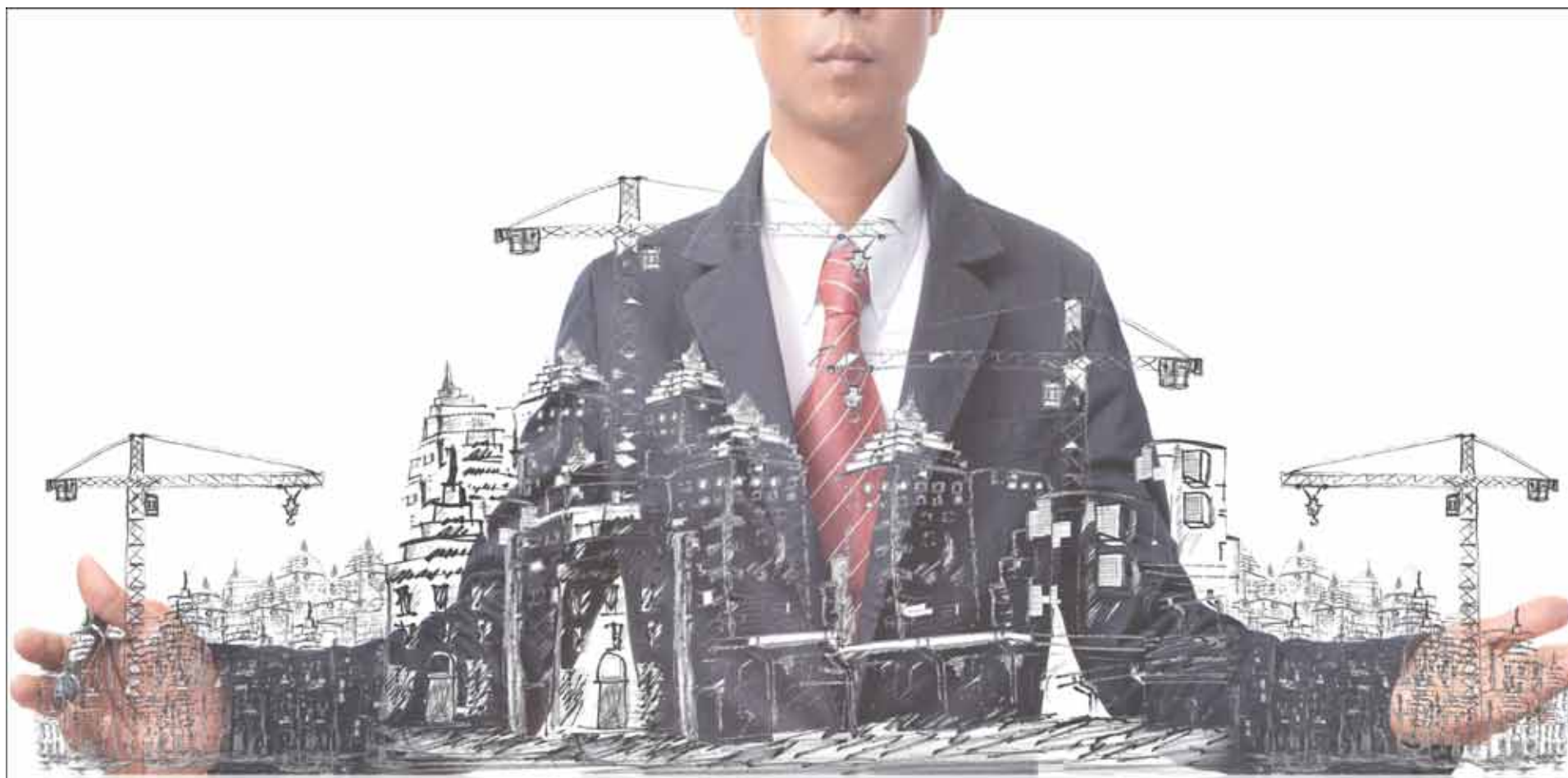
합리한 자원 배분으로 지방재정이 더 악화하고 있으며 부단체장 정수와 실·국 수까지도 중앙정부에 규제받는다”며 “지방자치 구현보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기본적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 입법·정책 과정 참여제도 마련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개헌 등 5가지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세부적으로 자치조직권 확립, 조례 입법권 강화,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확대 조정, 지방교부세율 21%로 인상,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 지방정부 의견 반영,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제도화,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주문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9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미래를 열어갑니다”

기술로 꿈을 건설하는 금광기업 금광기업은 창조와 무한한 열정으로 미래가 꿈꾸는 환경을 건설 해 나가겠습니다.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1. 모집부문 및 자격사항

직종	업무분야	근무지	자격요건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 기획총무팀	•재무, 회계, 자금조달, 운용 •개발사업·주택사업 경력자 •인사, 노무, 교육	광주	(공학) - 동종업계 해당분야 신입 및 경력자 - 기술지 역 및 인턴관리자격 소지 - 병역일, 컨테이너 하역시험에 합격사유가 없는자
영업지원본부 수주영업팀	•공공부문 최저가 투목, 건축 입찰 견적업무 •철도 및 고속도로 경력(기술자 우대)	서울 광주	(수주영업팀) - 역설프로그래밍 숙련자 우대 (건설분야)-데크로사용가능자
기술지원본부 토목팀 건축조경팀	•도로, 택지, 농업토목, 터널, 교량 •한반 및 PQ공정 경력기술자 •공동주택, 일반건축 등 S/S유경험자	전국	•본선 부문 성별무관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모집인원

• 각 직종별 남 00명, 여 00명 (임원, 경력 및 신입)

3.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최종학교졸업 및 성적증명서
• 경력기술서 및 기술인입회 발급 증명서 (경력자에 한함)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역) → 최종합격

5. 모집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14년 3월 20일 ~ 3월 31일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6 송원빌딩 7F 금광기업(주) 기획총무팀 (501-853)
• 문의전화: 062239-8124, 239-8133

6. 기타

- 이력서 우측상단에 응시직종, 희망근무지, 연락처, 희망연봉 기재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채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 지원서류에 허위 기재사실이 있을 시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금광기업주식회사 http://www.gumgwang.co.kr